

모든 것이 제 자리에
: Everything in its Right Place

서안나, 키츠
2024. 4. 26 – 5. 17

모든 것이
제 자리에
Everything in
its Right Place

서안나
Seo Anna
키츠
Kits

4.26 – 5.17 2024
@arte_k_official



모든 것이 제 자리에
Everything in its Right Place

4.26 – 5.17 2024
@arte_k_official

서안나
Seo Anna
키츠
Kits

개인전

2023 클립, 서울

2022 텅, 비어있는 삶, 서울

2022 YK Presents, 서울

단체전

2024 아르떼케이, 서울

2023 한평갤러리, 서울

2023 히피한남, 서울

2022 빈칸, 서울

2019 Bruxelles Art Fair, 브뤼셀

2019 Van Gogh Art Gallery, 마드리드

'함께 살고 있는 감자(강아지)와 우리(고양이),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고양이들은 일상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들이며 위로가 되어주는 동반자들이다.

그들과의 평범한 일상과 공간을 위트 있고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그들과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음식을 탐내는 강아지나 문을 여는 법을 아는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일 때의 일상들을 물감을 얇게 여러 번 올려 특유의 질감과 색으로 따뜻한 정서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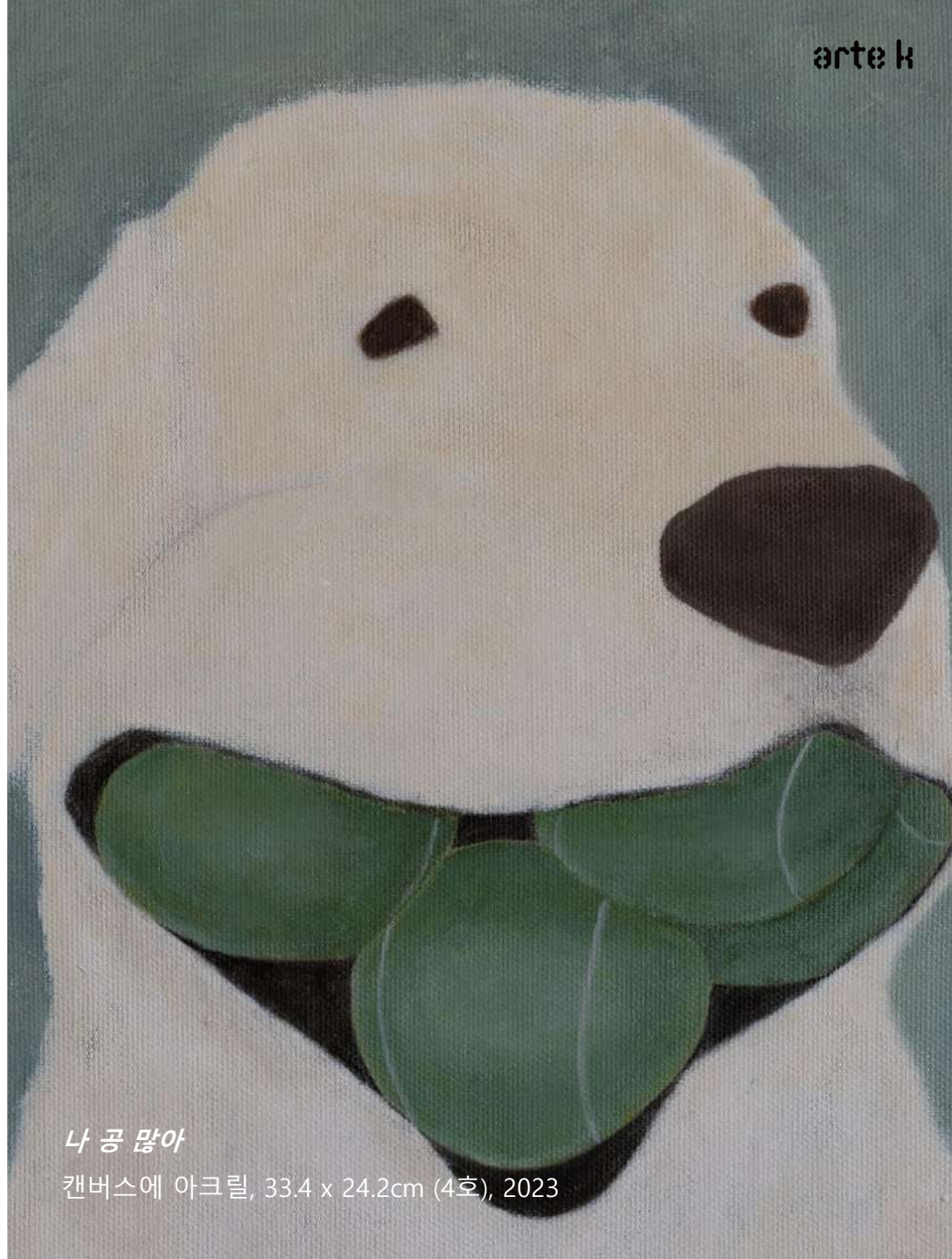
-서안나





읽을 줄 몰라

캔버스에 아크릴, 27.3 x 22cm (3호), 2023



나 공 많아

캔버스에 아크릴, 33.4 x 24.2cm (4호), 2023



빨리 가자

캔버스에 아크릴, 33.4 x 24.2cm (4호), 2023



곤이라면

캔버스에 아크릴, 33.4 x 24.2cm (4호), 2024



커피친구

캔버스에 아크릴

24.2 x 33.4cm (4호)

2024



몰래 고구마

캔버스에 아크릴, 40.9 x 31.8cm (6호), 2024



식사 준비 중

캔버스에 아크릴

27.3 x 40.9cm (6호)

2024



배곶

캔버스에 아크릴, 40.9 x 31.8cm (6호), 2024



또 다른 나

캔버스에 아크릴, 53 x 45.5cm (10호), 2023



길어진 수다3

캔버스에 아크릴, 53 x 45.5cm (10호), 2023



박스 안 고양이
캔버스에 아크릴
60.6 x 72.7cm (20호)
2024



꽃 보다 명

캔버스에 아크릴, 53 x 45.5cm (10호), 2024



냄새만 맡아보겠습니다

캔버스에 아크릴, 72.7 x 53cm (20호), 2024



정원에서

캔버스에 아크릴, 90.9 x 72.7cm (30호), 2023



행복하다개

캔버스에 아크릴

72.7 x 90.9cm (30호)

2023



arte k

문을 여는 방법

캔버스에 아크릴, 90.9 x 72.7cm (30호), 2024



기다려 고구마

캔버스에 아크릴

65.1 x 90.9cm (30호)

2024



누가 왔어?

캔버스에 아크릴, 72.7 x 116.8cm (50호), 2024

학력

2015 성균관대학교 시각디자인학 및 프랑스어문학 학사 졸업

개인전

2023 tya 갤러리, 서울

단체전

2024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아르떼케이, 서울

2023 삼성물산 래미안 원베일리 아트갤러리,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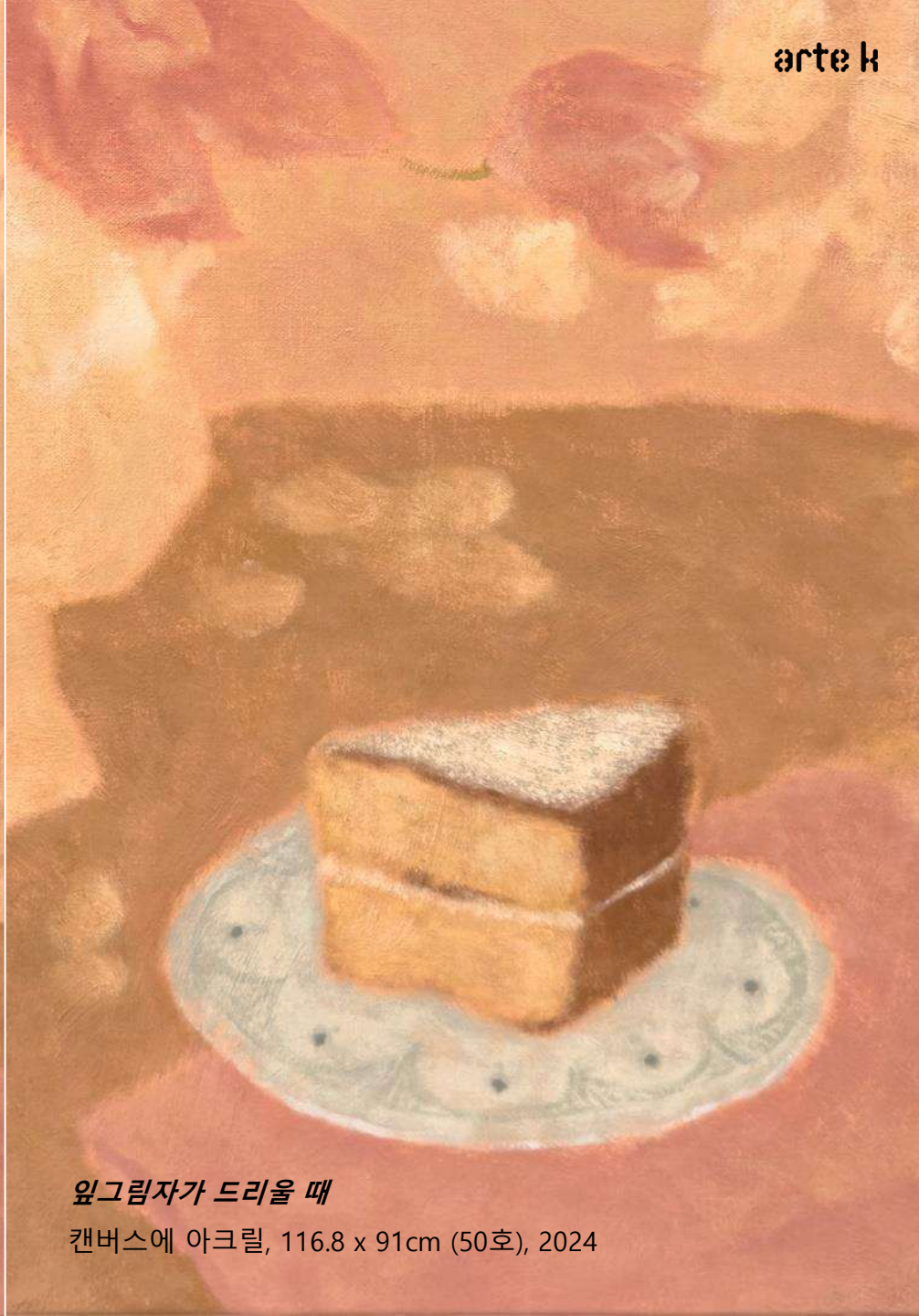
2020 CITYSCAPE 2020, CICA MUSEUM, 김포

“힘을 풀고 부드럽이 깊어져, 마치 물처럼 깊이 흐르고 흘러 각자가 지닌 고유한 알맹이에 닿고자 한다. 이러한 여정을 복돋는 힘은 변해가야만 하는 주위의 풍경들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온다. 이를 말랑한 형태, 나아가 몽글몽글한 경계, 포슬포슬한 텍스처, 온화하고도 요묘한 색채들로 표현하며, 고유한 지점으로 흘러갈수록 기꺼이 떨어내어질 것이다.

그저 일상 속 잠시나마 멈추고 싶은 순간들을 이러한 표현에 투영한다. 지켜보는 이들도 함께 각자만의 고유한 알맹이를 비추어 보기도, 매 순간을 그림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위안이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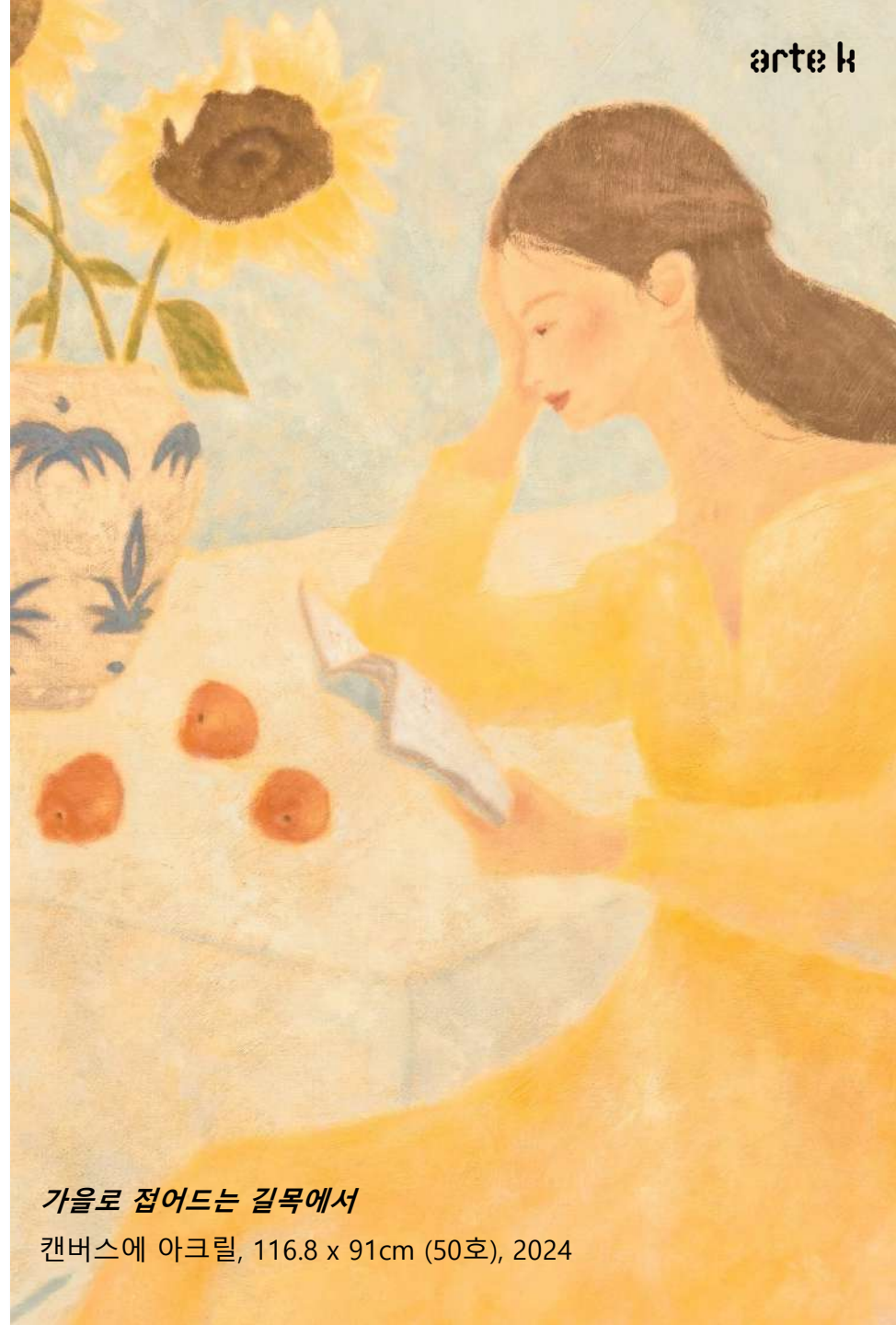
- 키츠





앞그림자가 드리울 때

캔버스에 아크릴, 116.8 x 91cm (50호), 2024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캔버스에 아크릴, 116.8 x 91cm (50호), 2024



한가을의 오후

캔버스에 아크릴

72.7 x 90.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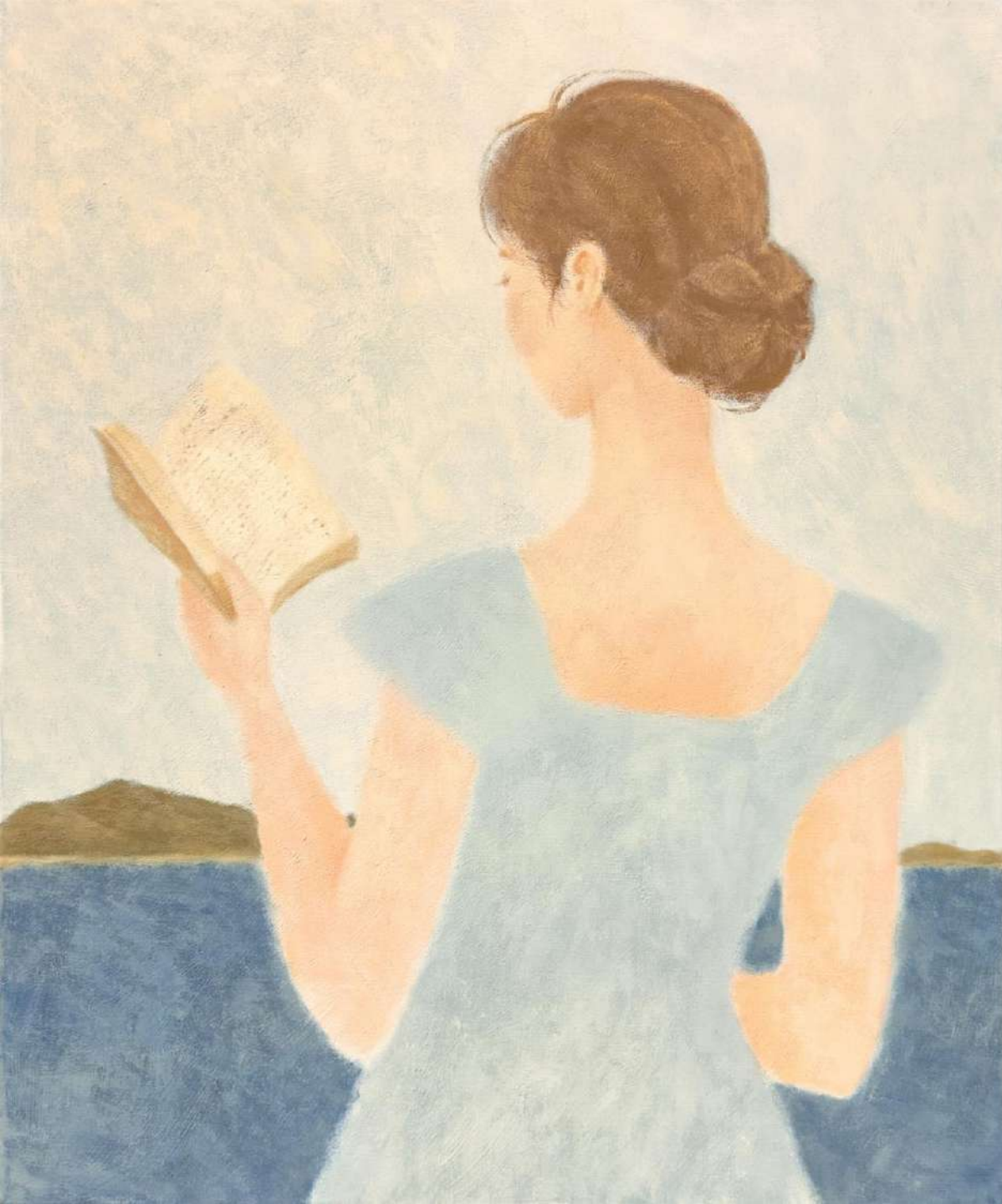
30호, 2024



arte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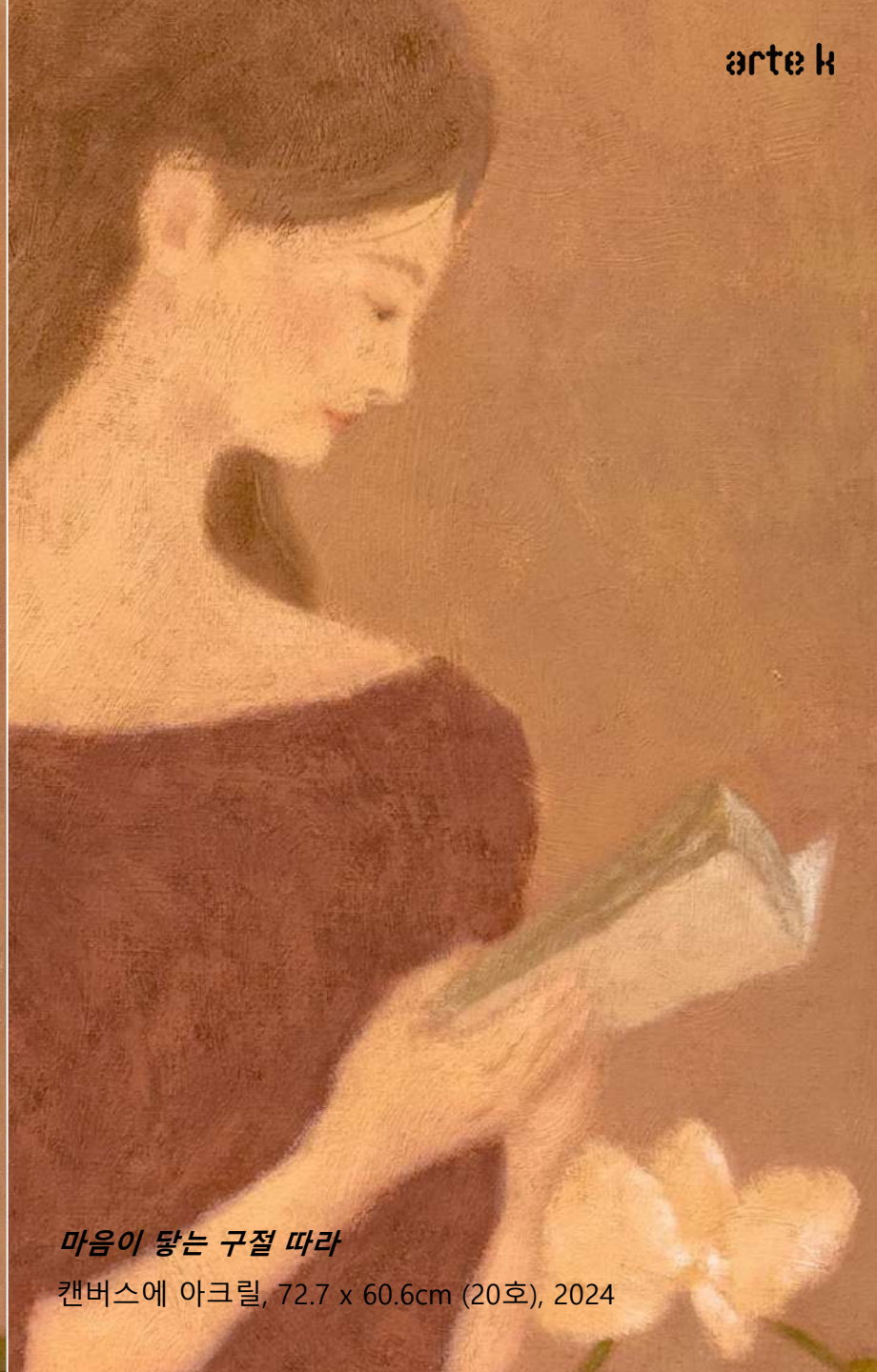
늦여름의 아침

캔버스에 아크릴, 90.9 x 72.7cm (30호), 2023



푸르른 계절을 읽다보면

캔버스에 아크릴, 72.7 x 60.6cm (20호), 2024



마음이 닿는 구절 따라

캔버스에 아크릴, 72.7 x 60.6cm (20호), 2024



노란 꽃과 레몬을 준비하면

캔버스에 아크릴, 53 x 45.5cm (10호), 2024



평안을 바라는 마음

캔버스에 아크릴

40.9 x 53cm (10호)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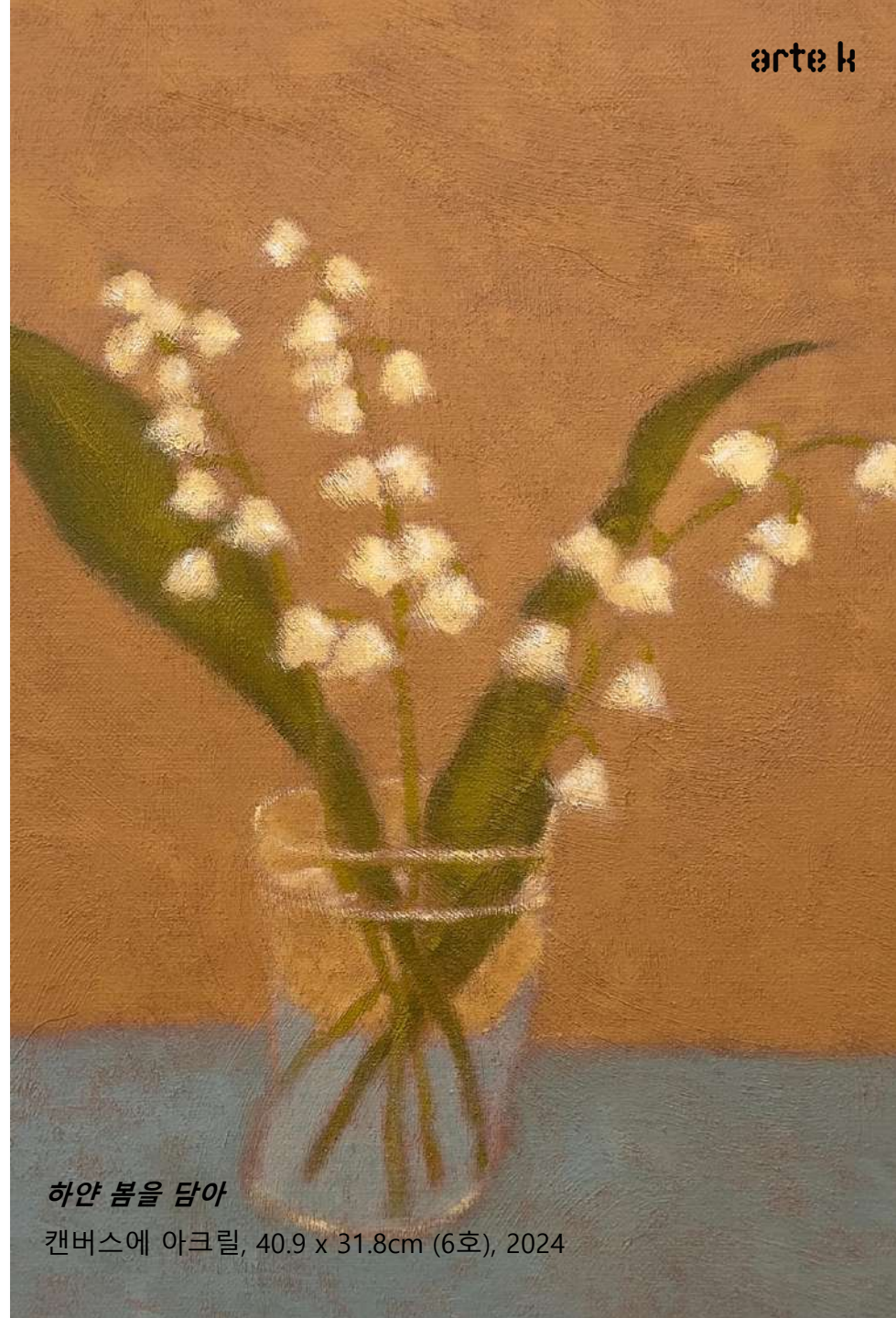
봄을 기다리며

캔버스에 아크릴, 40.9 x 31.8cm (6호), 2024



푸른 여름의 화병

캔버스에 아크릴, 40.9 x 31.8cm (6호),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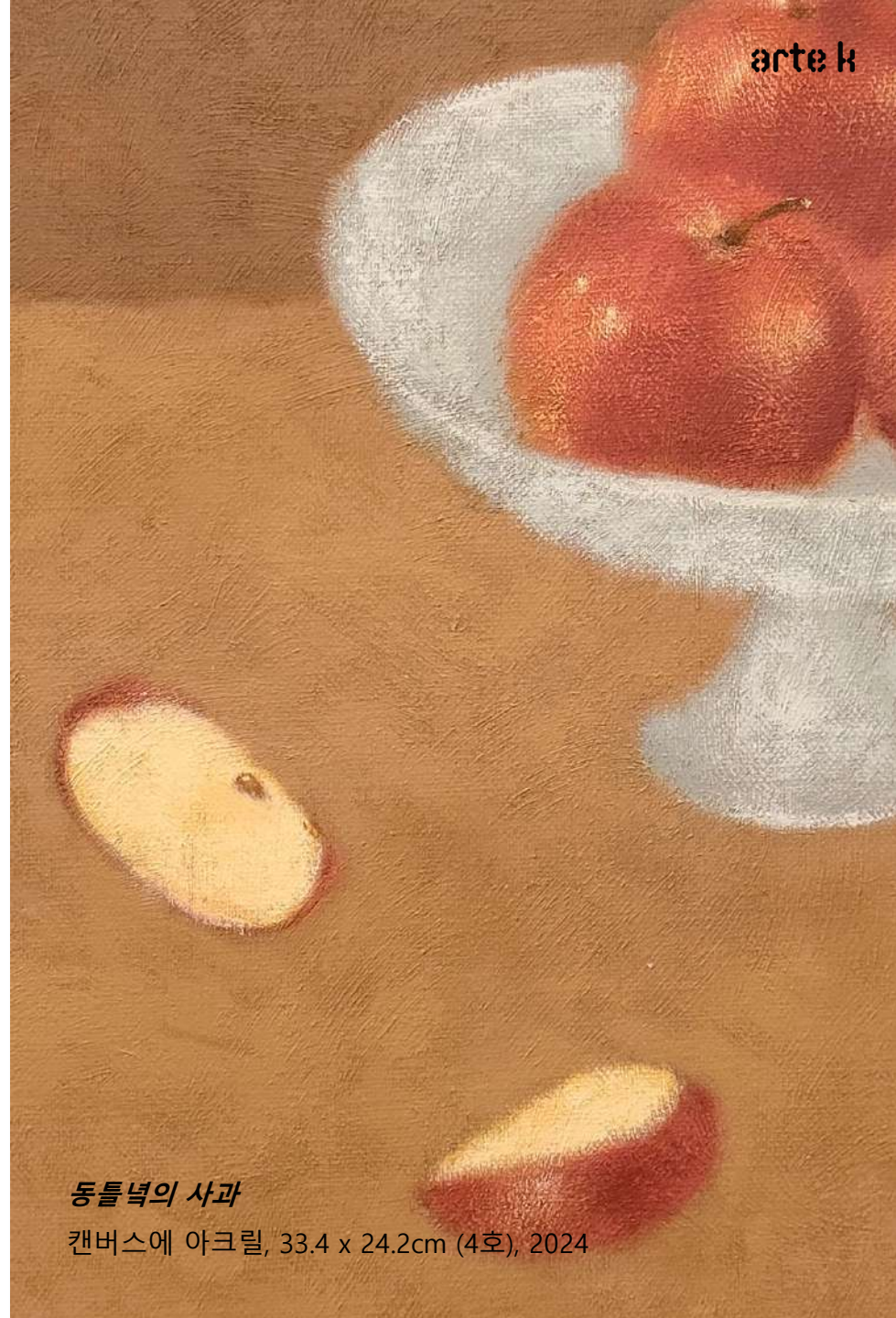
하얀 봄을 담아

캔버스에 아크릴, 40.9 x 31.8cm (6호), 2024



한여름 저녁의 복숭아

캔버스에 아크릴, 33.4 x 24.2cm (4호), 2024



arte k

동틀녘의 사과

캔버스에 아크릴, 33.4 x 24.2cm (4호), 2024



한가을의 배

캔버스에 아크릴, 33.4 x 24.2cm (4호), 2024



**일렁이는 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1**
캔버스에 아크릴
24.2 x 33.4cm (4호)
2024



**일렁이는 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2**
캔버스에 아크릴
24.2 x 33.4cm (4호)
2024



저녁의 도자기들

캔버스에 아크릴, 25 x 25cm (4호), 2023



아침의 도자기들

캔버스에 아크릴, 25 x 25cm (4호), 2023



여름의 청포도

캔버스에 아크릴

22 x 27.3cm (3호)

2024



가을의 무화과

캔버스에 아크릴

22 x 27.3cm (3호)

2024

arte k

www.arte-k.co.kr artist@k-auction.com
T. 02-6203-0101 @arte_k_official
arte K_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72길 24

arte k